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여수시 국제화전략

Yeosu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for Holding 2012 World EXPO

김길성* · 박복제**

목 차

- | | |
|-----------------------|---------------------|
| I. 서론 | 1.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 II. 여수지역 국제화 정도 및 문제점 | 2. 중소기업의 수출활동 지원 |
| 1. 외국인직접투자 및 국제무역 | 3. 국제적 관광자원 개발 |
| 2. 국제관광 | 4. 국제적 해양관광허브 항만 개발 |
| III. 여수지역 국제화 방안 | IV. 요약 및 결론 |

Key Words: World EXPO, Internationaliz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Export, International Tourism

Abstract

We, in this paper, suggest the Yeosu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for holding the 2012 World EXPO in Yeosu successfully. First of all, we analyze some problems that hinde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Yeosu. Our analysis, also, provides several strategic solutions to those problems by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trade, hub port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ourism. First strategy is to create a more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for foreign investors.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internationalize the specific district. Second strategy is to expand the export of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Yeosu. Especially, local firms with agricultural/fishery products have to develop various new products and introduce the effective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y. Final strategy is to develop the hub port in Yeosu and the new tourist resources to attract foreign tourists.

* 대표저자, 전남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kikis@chonnam.ac.kr, (061)659-3534,

** 공동저자, 전남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bjpark@chonnam.ac.kr, (061)659-3533

I. 서론

정부가 2012년 세계박람회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고 여수시를 박람회 개최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던 여수시는 지역발전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국가차원에서는 국가인지도 제고와 함께 국가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하며, 경제적 효과는 사업에 의한 직접효과 외에도 사업이 파생시키는 간접효과로 인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 특히 여수시가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되면, 여수지역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상호 연계하여 낙후된 남해안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세계로 진출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 해양도시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번 박람회 유치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여수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해양관광자원이 더 풍부하고 또 비교우위가 있는 해양산업 및 국가산업시설을 보유하고도 유치에 실패한 주요 원인은 현저하게 낮은 국제적 인지도 때문이다. 여수시의 낮은 국제적 인지도를 감안하면,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 및 중앙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여수시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역 국제화 방안들이 신속하게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제화란 그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이장로, 2000). 특정지역의 국제화도, 기업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기업 및 시민들의 국제적 활동 및 국제사회 공헌도를 증가시키고,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나아가 지역 특유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국제관광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길성, 2001).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한 중국 상하이의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실시한 결과, 세계 굴지의 다국적기업들이 몰려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국제화에 성공하였고 지금은 중국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5년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일본 나고야도 88 올림픽 유치 실패를 경험삼아 지하철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학술회의 등 국제적 규모의 이벤트를 적극 유치하면서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고 오늘날의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한 지역의 국제화가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나 국제관광객의 적극적 유치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수시도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국제화 요건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먼저,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 내 많은 기업들이 이미 광양항과 울촌항을 통해 수출과 같은 국제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광양항을 포함한 인근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다국적기업들의 투자유치가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도해 및 한려수도와 같은 천혜의 해상관광 자원을 포함해 세계최대의 공룡유적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또 독특한 맛의 농수산물이 풍부하여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여수지역의 이러한 자원들과 여건은 지역 국제화를 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수산업단지는 환경오염 주체로서 지역민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다양한 관광자원들은 접근성의 어려움 때문에 효율적으로 개발 및 이용되지 못한 채 묻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여수시 유치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및 국제관광 등의 활성화와 같이 국제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여수지역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여 전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장 서론에서 연구배경, 목적, 그리고 구성 등을 설명하면서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지역 국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2장에서 여수지역의 국제화관련 통계 등을 통해 현황분석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수지역 국제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II. 여수지역 국제화 정도 및 문제점

1. 외국인직접투자 및 국제무역

여수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마주하는 동북아시아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광양만권 산업클러스터와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남·서측으로는 해상국립공원과 청정해역이 있어 산업과 자연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투자 및 관광지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과 여수시의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수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http://www.yeosu.go.kr>). 사실 외국인직접투자의 50%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전남지역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외국기업 및 외국인을 위한 경영 및 정주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세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다국적기업들의 대형투자가 유입되고 여수·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여수지역 내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독일계 화학회사인 바스프사(Badische Anilin & Soda-Fabrik, BASF)가 한국바스프 여수공장에 약 30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14만 톤 규모의 TDI(Toluylene Diisocyanate)공장을 여수산단에 설립하였고, 또 최근에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에어리퀴드 그룹이 여수산단 내 공장증설을 위한 1,2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여수지역이 점차 외국인투자 유망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편 이들 다국적기업들의 지역 내 대규모투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직접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수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외에도 운송 및 포장과 같은 관련산업의 수익증대 등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Doukas and Lang, 2003). 예를 들어, 2008년까지 공장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에어리퀴드 그룹의 투자는 900여명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고용창출과 연평균 400억여원(2009년까지 연평균 399억원, 2009년 이후 매년 856억여원 예상)의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조세감면 기간 중 95억여원, 감면기간 종료 후 매년 84억여원의 안정적인 재정수입의 확보가 예상되고, 아울러 여수국가산단 내 안정적인 산업용 가스의 공급으로 산단 내 연관산업 발전과 타 기업의 증액투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http://www.yeosu.go.kr>).

한편 정부는 여수·광양만권 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최근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그리고 하동군 일원 2,691만평(여수 968, 광양 870, 순천 473, 하동 380)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목표로 여수를 비롯한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규제의 완화와 세제 등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계획으로서, 여수지역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단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여수산단도 총947만평 중 219만평을 추가로 개발하여 한국 최대의 석유화학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투자의 증가가 기대된다.

한편 여수시의 무역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은 1993년 이후 석유화학 관련제품들이 주도하고 있고, 수입도 1996년부터 석유화학 관련제품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수출입총액은 222억 달러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총액 4,738억 달러의 4.68%에 불과하여 수출입실적으로 살펴본 여수시의 국제화정도는 생각보다 저조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참조>.

품목별로 여수시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기업 제품과 중소기업 제품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에 의하면, 2004년에 음료 및 담배 등의 수출이 급증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공산품에 비해 지역 중소기업이 취급하

는 농수산물의 수출은 미미한 편이다. 청정해역으로부터 품질 좋은 수산물의 공급이 원활하고, 또 해양성 기후로 인해 돌산갓과 같은 차별적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수지역 농수산물의 수출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인 농수산물 가공업체들이 기술개발이나 수출마케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요구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고, 또 국제적 수준의 안전관리 시행이 미비하여 직접수출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김길성, 2001).

<표 1> 여수시 수출입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도	총액	수출	수입	비고 (주요 특징)
1993	2,004,433	2,004,433		석유화학 관련제품 수출액
1994	2,288,645	2,288,645		석유화학 관련제품 수출액
1995	2,919,044	2,919,044		수출에 기타 제조품 포함
1996	8,854,961	3,000,164	5,854,797	수출에 농산물 포함
1997	12,063,201	3,787,717	8,275,484	수입에 석유화학 관련제품 포함
1998	8,236,128	3,155,974	5,080,154	수입에 석유화학 관련제품 포함
1999	9,497,526	3,282,668	6,214,858	광물성연료 유회유, 화학제품 수출감소
2000	17,325,782	6,827,748	10,498,034	광물성연료 유회유, 기타제조품 수출증가
2001	12,889,474	4,169,579	8,719,896	기타제품 수출 감소
2002	13,561,558	4,515,235	9,046,323	화학물 및 관련제품 수출의 상대적 감소
2003	16,457,666	5,258,601	11,199,065	화학물 및 관련제품 수출의 상대적 감소
2004	22,207,917	7,843,898	14,364,019	음료, 담배, 비식용원재료 수출입증가

자료) 여수세관

<표 2>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천 달러)

연도	식품, 산동물	음료, 담배	비식용 원재료	광물성연료유회유, 관련물질	동식물성유지, 왁스	화학물 및 관련제품	기계	기타제조품	비분류 상품
2000	11,448	-	-	1,515,648	3,085	2,677,677	31,360	540,426	2,048,104
2001	8,947	183	-	1,308,575	261	2,346,022	37,750	467,841	-
2002	16,518	1	164	2,524,693	3,032	1,687,181	21,620	140,061	121,967
2003	5,347	11	79	2,741,233	368	2,110,406	90,933	224,341	85,883
2004	4,218	1,915,073	5,551,085	39,579	11,284	2,110,406	142,167	14,119	4,566

자료) 여수세관

그리고 여수시의 지역별 무역다변화도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와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국제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여수시의 무역교류는 우리나라 전체 통계와 유사하게 중국과 일본 등 몇몇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농수산물 수출은 주로 일본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제품의 특성상 한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금이나 인적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업체의 입장에서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여수시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지역특산물 홍보활동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외시장 개척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그와 같은 결과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여수지역의 낮은 국제적 인지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 즉, 다양한 국제적 이벤트의 유치나 재외국민 대상의 판촉·홍보와 같은 오프라인 상의 해외 홍보활동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 국제 관광

여수시는 2010년과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로 선정될 만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청정해역 다도해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풍부한 해양·수산자원과 공룡유적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으며, 국제적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지역특유의 전통이나 문화축제, 고유 향토음식 등도 풍부하다. 게다가 여수지역이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 홍콩 등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관광국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 및 일본을 연계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서의 성장가능성도 높다. 특히 최근에는 여수지역이 광양만권자유경제구역에 지정됨으로서 외국인들의 유입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도 기대된다(김길성, 2001).

그러나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과 천혜의 자연조건, 그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아직까지 국제적 관광도시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표 3>에 의하면, 2001년 이후 여수시를 찾는 외국인관광객 수가 점차 늘고 있지만, 그 비중은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의 2~3%에 불과하다. 여수시가 국제관광지로서 충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외국인관광객 비중이 낮은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먼저 숙박 및 편의시설과 같은 관광인프라가 열악하고 도로나 철도와 같은 교통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여수지역 내에 특급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그리고 유스호스텔 등과 같은 대규

모 숙박시설이 없고, 또 관광 편의시설 등도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찾아온 관광객마저도 여수지역을 단순한 통과형 또는 당일형 관광코스만으로 이용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광지로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지만 여수지역은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육해공 모든 경로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육상교통은 현재 국도 17호선과 전라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국도 17호선은 커브 및 경사구간이 많고 대형 화물차의 잦은 통행으로 사고위험성이 높아 관광낙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여수시 방문 관광객 현황

연도 관광객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외국인	7,417	6,657	45,811	91,662	105,290	110,184
내국인	3,245,304	3,719,988	3,907,793	4,118,374	4,424,690	4,627,816
계	3,252,451	3,726,645	3,953,604	4,210,036	4,529,980	4,738,000

(단위 : 명)

자료) 여수시 문화관광과

구분	업체수	비고
관광호텔	7	280(객실수)
여행업	52	33(국외), 19(국내)
관광유람선업	2	
관광공연장업		
관광편의시설업	9	

<표 4> 여수시 관광사업체 현황(2004)

자료) 여수시, 여수통계연보, 2005.

철도 역시 여객수송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전라선의 경우, 서울-여수 간 운행회수는 1일 새마을호 3회, 무궁화호 11회 등 총 14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수송용량은 1일 평균 새마을호 900명, 무궁화호 13,200명이다<표 5>참조. 대부분의 외국인관광객들이 서울을 통해 여수와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 도시보다 훨씬 적은 새마을호 운행회수 뿐만 아니라 KTX가 운행되지 않는 점도 관광객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항공의 경우, 최근 여수공항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결항률 감소와 공항 이용의 편리함 등으로 항공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로서 그리고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본다면 결국 일본, 중국 등과의 근거리 국제선 신설도 필요하다. 해상의 경우도 3면이 바다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단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선 정기항로가 없어 실질적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박람회 개최장소인 여수신항을 비롯한 여수지역 항만들의 규모가 작고 시설이 낙후하여 크루즈선박 등 대형선박의 입항이 어렵기 때문에 여수시가 국제적인 관광허브 및 물류중심지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교통수단 구분	고속버스		철도(전라선)	항공		해운
	서울-여수	여수-부산	서울-여수	서울-여수	여수-제주	여수-제주
거리(km)	443.6	226.8	444.1	390.0	213.0	
운행회수	17(9)	5(9)	14	12(9)	1	1
1일 수송량(명)	700	200	14,100	2,300		600

<표 5> 여객 수송현황

자료)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한편 관광인프라 외에 또 다른 주요 문제점은 국제적인 관광상품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상품은 국제적인 관광프로그램이나 이벤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과 테마공원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여수시는 국제청소년 축제를 제외하고는 양쪽 모두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천혜의 해양·수산자원과 최대의 공룡유적지, 고인돌 등 외국인들의 관심을 집중 시킬만한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여 소중한 관광자원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묻혀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일상이 사업비 15,031억 원을 투자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여수시 화양지구 내 299만평 (해수면 별도 115,000평)을 골프장, 호텔, 콘도, 카지노, 세계민속촌, 그리고 마리나시설 등이 포함된 친환경적 국제 해양·관광 리조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리조트 건설이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이 사업이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면서, 묻혀 있는 다른 관광자원들까지 개발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여수지역 국제화 방안

1.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 내에 자본과 기술, 인력 등의 경영자원 이전, 무역수지 개선, 투자초기의 경쟁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Caves, 1982) 전후방 연관산업의 수익증대와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어(Doukas and Lang, 2003) 지역 국제화와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지만 투자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 경쟁우위, 즉 우수한 인력 등과 같은 생산요소와 시장 접근성,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 인프라 등이 없다면 외국기업 유치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여수시의 경우, 시장 접근성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시장 접근성 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결국, 여수지역의 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 선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사항들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지역 및 시장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망 확충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철도 복선화, 고속도로 연장, 항만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는 청사진이 아닌 실질적인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BIE 실사단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과 함께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거, 교육, 그리고 의료 등 정주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남금식, 2003).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효과적인 외국인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수시와 관련 있는 국가, 예를 들면, 하멜의 네덜란드, 거문도 사건의 영국, 그리고 여수산단 내 대규모 투자국인 독일 등을 배경으로 특화된 외국인 마을을 조성할 수도 있다. 특화된 외국인 마을은 역사적, 경제적 유대감을 통해 양자간의 문화적 거리를 줄임으로써 향후 특정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고, 외국인 마을 조성을 통해 축적된 정보는 미래 외국기업의 투자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정주 인프라 구축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 다른 지역과 달리 여수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속하기 있기 때문에 간소한 행정절차,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 유리한 임대조건, 그리고 외국인전용주택 보급 등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기업들에게 적용된다. 외국기업 투자유치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싱가포르에는 현재 500개 이상의 다국적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이러한 성과는 바로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1992년부터 싱가포르를 무역, 금융, 물류, 미디어, 정보, 관광 등의 분야에서 다국적기업의 지역총괄본부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계획'을 수립한 후 법인세 경감 등 각종 우대조치를 제시함으로써 동남아 최고의 국제도시로 성장시켰다(정재완, 1999).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더라도, 앞으로는 여수지역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산업, 예를 들면, 정보통신, 물류, 호텔, 그리고 테마파크 등과 같은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유치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여수시에는 비록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지만 서남쪽으로는 천혜의 해양수산 및 관광자원이 있고 다양한 역사유물이 있다. 최근 문화관광산업이 IT산업과 함께 가장 발전성 있고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여수시는 가능한 국제화를 촉진시키면서 자연환경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여수지역 중소기업 수출활동 지원

여수시 수출입의 대부분은 대규모 석유화학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들의 수출입이 지역 국제화와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큰 혜택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지역 국제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무역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촉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수입의 경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여수지역의 수입실적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입보다 중소기업들의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다양한 농수산물의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투자를 유도한다. 신기술개발이 인정을 받았을 때 자금지원과 함께 수출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산 건오물산의 경우, 일본기술자의 지도를 통해 미니가지 신품종을 개발해 1999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93톤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기술투자에 의한 수출가능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개발은 수출활성화와 기업의 수익성제고에 큰 도움을 준다(<http://www.geonnan.go.kr>).

<표 6> 수출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 명, %)

항목	응답자 수	빈도	누적빈도
수출특화상품 및 기술 개발	850	33.7	33.7
해외시장정보 제공	581	23.1	56.8
수출업무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524	20.8	77.6
수출자금 지원	328	13.0	90.6
공동브랜드 개발	237	9.4	100

자료)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여수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2000

<표 6>은 여수지역 기업 및 시민을 대상으로 수출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수출특화상품 및 기술개발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금이나 인재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활성화를 위한 상품 및 기술개발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기술이 급변하고 소비자의 수요가 고급화됨에 따라, 이들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제품이나 경쟁력 있는 수출품을 개발하기란 핵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핵심능력, 즉 기술이나 디자인, 경영, 마케팅 능력 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여 지역 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산학협동 네트워크 체계의 기술·경영지원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김길성, 2001).

한편 해외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역 특유의 농수산물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수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외관상 결함이 있는 제품을 이용할 수 있고, 생물수출시의 부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수지역 농수산물 가공제품의 경우 김치, 절임, 죽, 건포, 냉동 등 단순가공품에 불과하고 농수산물 가공공장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들산갯이나 굴 등 지역적,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적 원료의 공급이 가능함으로써 수출가능성이 높은 농수산물의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 연구개발비 보조, 가공공장 설립 및 가공시설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 및 세제혜택, 가공식품의 생산부터 수출까지의 일원화된 행정, 그리고 신규공장 설립 시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차별화된 브랜드나 포장디자인도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가치 제고로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수출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특히 지역 특산물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브랜드는 제품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동종업종 또는 동일지역 기업끼리 공동브랜드나 포장을 개발하는 마케팅 제휴도 필요하다.

한편, 최근 선진국들의 식품안전기준 강화로 인해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업체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을

반드시 도입해야만 한다. 미국의 FDA 등은 수산물이나 육제품에 HACCP를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EU는 HACCP를 적용하지 않은 수산물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들도 HACCP를 강제적 또는 권장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HACCP는 과거의 식품위생관리규정 등에 의한 방식과 달리 원료생산, 수확, 운반, 제조 및 가공, 보관, 유통 및 판매,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을 각 단계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제품에 결정적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 지점 등에서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적 자주위생관리체계이다 (<http://www.khidi.or.kr>).

한편 급변하는 기업환경 하에서는 제품의 적극적인 촉진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자금 및 인력 등 내부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틈새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촉진활동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최적의 틈새시장 발견과 효율적인 촉진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해외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수집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역협회의 무역정보통신망(KOTIS)이나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무역환경변화, 각국 시장 및 수출입동향, 환율·금리·물가현황, 전 세계 바이어 정보, 국내의 입찰정보, 국제원자재 시세 및 수급동향, 거래알선 정보 등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및 사이버무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터넷마케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사이버무역에 관한 교육 지원 외에 여수시가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정보화공단(Tele-Port)의 설치이다. 정보화공단이란 한 지역이 향후 디지털시대에서 국제비즈니스 센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인터넷하부구조를 강화하고 인터넷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정보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인터넷사업에 필수적인 초고속통신망, 전력시설, 항온·항습장치, 서버 등 관련시스템을 갖추고 기업정보시스템 관리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박의범 외, 2001). 이러한 정보화공단은 수출기업은 물론 외국인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제화의 촉진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학협동하에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오프라인 상에서 국제교류도시를 포함한 해외시장에 지역 우수상품을 널리 홍보하는 등 해외시장 다변화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활성화 한다. 기업인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은 민간 지역경제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무역사절단 역할을 수행하고, 전시회 및 박람회 등 참가와 함께 주요 교역대상국의 통상제도·정책 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며, 경우에 따라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유치홍보 역할을 병행함으로써 여수지역 국제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여수지역 특유의 국제 관광자원 개발

1) 국제적 관광상품 개발

최근 관광객들의 성향이 해양레포츠와 같은 활동으로 고급화되고 또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수지역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는 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레포츠의 개발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홍국사, 향일암, 은적암 등의 고찰과 진남관, 충민사, 선소 등의 역사 유적지, 그리고 사도의 공룡발자국, 현천 소동패놀이 등 다양한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체험적 관광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높다<표 7 참조>.

<표 7> 여수시 주요 관광자원

구분	주요관광지 및 자원
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오동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거문도·백도지구, 금오도지구)
해수욕장	만성리, 모사금, 신덕, 방죽포, 장동, 거문도, 안도, 사도, 낭도, 유림, 삼산면 서도
유원지	무술목유원지
사적지	진남관, 충민사, 고소대, 홍국사, 향일암, 은적암, 선소, 오층사, 석창성지, 손양원목사 순교기념관, 돌산향교
도시공원	자산공원, 남산공원, 망마공원, 거북공원, 장수쌈지공원, 돌산공원
축제	여수거북선축제, 오동도동백꽃축제, 향일암일출제, 영취산진달래꽃축제,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여수돌산갓김치축제, 여수생선요리향토음식큰잔치, 거문도은빛갈치바다축제, 덕양곶창축제
기타	영취산, 소호요트경기장, 고니도래지, 사도 공룡발자국 및 모세의 기적, 수산종합전시관, 현천 소동패놀이, 돌산대교

자료) 여수상공회의소, 「2010 해양EXPO 여수유치 심포지엄」, 여수시 홈페이지

따라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해양레저 프로그램, 즉 모터보트 경주장 설립이나 카약 등의 수상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해양리조트 시설에는 수상 및 풍속, 파고 등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세계박람회 개최예정지인 여수신항이나 구항, 특히 소호 요트경기장 등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차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수상스포츠 및 해양레저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은 문화유적지와 전통생활체험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특히 여수지역의 사도와 낭도, 추도, 적금도에서 발견된 4천여 점의 공룡발자국은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발견된 공룡발자국만으로도 세계 최대규모이며, 또 세계 최장거리인 65m 보행렬이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증도와 문도, 목도, 대해도, 남해도 등에서도 공룡알이나 뼈 등 다양한 화석의 출토가 기대됨으로써 이 지역이 명실공히 세계 최대규모의 공룡서식지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추도와 사도도 소위 모세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바닷물 갈라짐 현상이 매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계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김길성, 2001).

한편 돌산이나 금오도도 섬 자체가 관광상품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돌산의 향일암 일출은 이미 유명한 관광상품이 되었고 동백, 후박, 구실잣밤 나무 등의 수목이 가득 찬 금오도는 한 곳에서 일몰과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있을 만큼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금오도와 돌산, 공룡발자국화석발견지인 추도, 사도 등의 섬을 연계하여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농어촌 전통생활을 체험하는 테마 관광프로그램은 외국인관광객들에게 꽤 인기 있는 상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테마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과의 관광교류 및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외국인관광객들이 특정 지역 한 곳만을 관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근에 국제적 관광도시 제주도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경남, 그리고 지리산과 백운산, 조계산 등 명산이 있고 해남 화원관광단지 개발되고 있다. 특히 순천, 화순, 보성, 고흥 등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이 소중한 선사시대 유적 고인들의 보고이다. 유네스코는 2000년 11월에 전남 화순, 전북 고창, 그리고 경기 강화 등 3개 지역의 고인돌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는데, 특히 전남지역은 전국의 고인돌 29,000 여기 중 65%인 19,000 여기가 몰려 있는 한반도 최대의 고인돌 지역이다(동아일보, 2001). 이와 같은 고인돌과 공룡발자국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에게 대단히 인기 있는 관광상품이 될 것이다.

현재 여수시에는 갖가지 축제 등 이벤트가 풍성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사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참여 저조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더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축제들을 하나로 묶어 대형화되 국제적인 문화예술 및 스포츠 행사와 연계 및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 및 국제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벤트의 개발은 관광지 개발만큼 많은 시간과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기존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지역 문화의 상징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국제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직까지 여수시를 대표할만한 문화적 상징이 없는 현실 속에서 차별화된 이벤트를 통한 차별적인

문화적 상징의 창출은 세계박람회 유치에 중요한 요소인 주제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차별화된 문화적 상징 외에 지역 특산품이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지역 고유의 향토특산품이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 현지로 수송되는 경우, 제품은 관광지를 홍보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외국인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주요 촉진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고, 여기에 어울리는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여수시 특산물 중 관광상품 및 수출품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청정해역 가막만에서 생산되는 굴이나 고막 등의 수산물과 독특한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은 돌산갓, 유자와 같은 농산물이 있다(김길성, 2001).

2) 관광인프라 개선

국제적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접근성이다. 여수시는 내륙지역과 달리 육상과 해상, 항공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접근성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교통망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중앙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사업이 아닌 단기간에 실천 가능한 방안들만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최근 확장 공사를 마친 여수공항의 항공노선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여수 간 여객기 운항회수를 증편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수지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국인관광객들이 서울을 통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라도 인천국제공항까지 직항노선을 신설하여 외국인관광객 및 수출품 등의 수송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박람회장 접근성에 대한 BIE 실사단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주지역과의 관광연계를 위해 여수-제주 간 운항회수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할 것이다.

한편, 해운의 경우, 부산, 제주, 목포 등 주요 연안도시와는 운항을 하고 있지만 인근 국가들과는 항로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 중 일본인과 중국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국가로부터의 관광유입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일본 및 중국과의 항로를 신설해야 한다. 특히 일본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더 확대하기 위해 과거의 여수-후쿠오카 간 카페리호 운항을 재개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수시의 관광국제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숙박시설의 확충이다. 최근 아시아의 관광대국으로 성장한 태국은 한 해 관광객이 우리의 2배인 920만 명이 며,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관광수입에서 올리고 있다. 그러한 성과는 바로 태국관광의 주요 경쟁력인 숙박시설에서 나오고 있다(김길성, 2001). 그러나 여수시의 경우는 콘

도미니엄이나 유스호스텔, 그리고 특급호텔이 전무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국제적 행사마저도 개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소득세를 감면하는 조건 등으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컨벤션센터는 이미 국제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 입증되어 있다. 컨벤션센터는 본래의 의미인 국제회의를 비롯하여 각종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등의 개최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수출기업에 대한 편의 제공과 정보교류 기능으로 기업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호주의 시드니컨벤션센터 경우, 2000년 한 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건수의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1억 2천만 호주 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렸고, 싱가포르의 세계무역센터 등도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도 아시아태평양무역센터와 세계무역센터를 국제비즈니스와 관광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김길성, 2001).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컨벤션센터들이 각각 다른 성과를 나타내면서 컨벤션센터의 건립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긴 하지만 성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식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변변한 국제회의장 하나 없는 여수지역의 경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국제회의 한 건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였다. 일단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연 수천 건에 달하는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컨벤션센터는 고유 기능 외에도 문화예술 공연장, 관광 편의시설, 해외시장개척 지원기구의 실무 공간, 해외시장정보 자료실 등으로 다양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2012년 세계박람회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이다. 참고로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의 전체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건수를 2003년도에 국제회의 365건, 전시회 153건, 2006년도에는 국제회의 472건, 전시회 172건, 2011년에는 국제회의 689건, 전시회 203건으로 추정하고 있다(김길성, 2001).

4. 국제적 해양관광허브 항만 개발

여수시가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제시한 여수시 항만의 21세기 비전은 여수시와 광양만권을 비롯한 전라남도의 경제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수시를 동북아물류중심지로 개발하고, 또 한려 및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허브로 개발하는 것이다(여수시, 2005). 물류든 관광이든 허브항만이 된다는 것은 특정 경제권의 중심항만이요 관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임종관, 1994). 먼저,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위한 지역성장 거점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울촌 컨테이너부두를 포함한 기존 항만들을 지속적으로 정비·발전시키고 항만산업을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며 전국 물류 네트워크화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해양관광허브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국가계획 확정에 따른 도시기능과 조화된 항만개발, 해양문화의 자원화를 위한 구항정비, 준설토 투기장의 효율적 활용, 물류기능과 친수공간 및 생활공간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항만공간 창출 등이 요구된다.

특히 친환경적 항만 개발을 위해 항구의 기능을 분화하고 특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항만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항만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워터프런트의 관광활동별 기능성을 특화하고 이들을 최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도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형 워터프런트로 개발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워터프런트의 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먼저 여수항을 공간 기능별로 연안여객터미널 기능 외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광거점으로 활용하고 주변 친수공간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며 주변에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여수 수산특산물 상가를 조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구인 여수신항은 워터프런트의 정주환경 제고를 위한 21세기형 Marine polis로 개발하여 최첨단 해양관광정보 교육지구로 활용하고 대형 크루즈 선착장 시설을 갖추어 세계 해양관광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구항(중포항)은 문화유산과 연계한 문화·교육 공간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멜을 매개로 한 여수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형물을 건립하고 수변 공간을 테마 공원화하면서 시민 문화 및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그리고 삼일항 및 묘도항은 여수 국가산단 전용 컨테이너 터미널 외에도 해양문화관련 전시장, 전망시설, 해양식물원, 방파제 뉴시터로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묘도 준설토 투기장은 대중 체육시설 및 친수공간으로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여수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2004).

국동항은 다기능 종합어항 개발 국가계획으로 확정(2004. 10. 25)되었기 때문에 노후 어항시설 보수와 함께 제빙, 냉동·냉장, 젓갈류 공장 등을 유치하도록 하며 경도와 신월지역을 연계한 해양관광타운을 조성하고 관광낚시배 터미널과 요트장을 건설하도록 한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이나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문화공연 시설들을 유치하여 휴식 공간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막만 및 기타 도서 지역항은 연안여객 선착장, 수상택시 및 수상버스 터미널, 모터보트 및 요트장을 건설하여 도서 관광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세계박람회 유치에 큰 도움을 주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여수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과 다양한 항만, 그리고 한려수도와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투자 및 관광지역으로서 국제화를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역기업의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저조하고, 또 외국인관광 수요가 거의 창출되지 않아 국제적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도 결국 주요 패인은 경쟁도시였던 상하이의 국제적 지명도에 밀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은 여수시가 반드시 2012년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수출 증가, 국제관광 수요 확대, 그리고 국제적 해양관광허브 항만 개발을 위한 실천적 국제화전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여수시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앞세워 실질적인 행정절차 간소화, 토지매입 및 임대 시 유리한 조건 적용, 그리고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되, 가능한 환경오염으로 국제화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화학산업 보다는 물류나 IT 등과 같은 하이테크 산업, 그리고 문화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산업클러스터를 확대하도록 한다.

두 번째 전략은 여수지역 특성상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수의 경우, 독특한 해양성기후로 인해 차별적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하고, 인근 청정해역으로부터 질 좋은 수산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수산물가공업의 수출잠재력이 큰 편이다. 따라서 외국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다양한 가공제품의 개발과 품질보증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의 개발 등 수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가공업체들은 대선진국 수출을 위한 HACCP의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국제시장을 다변화하고 적합한 틈새시장 발견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사이버무역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 정보시스템 구축과 인터넷무역전문가 양성 등 기업정보화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여수지역 관광자원을 국제적으로 상품화하고 낙후된 관광인프라를 개선시킴으로써 외국인 관광수요의 증대와 함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공업중심 정책에 밀렸던 문화관광산업은 이제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더구나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과 글로벌화로 국제관광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가진 유망사업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발자국 유적지를 답사하고 해양레포츠를 체험하는 테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축제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국제화,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대규모 테마파크가 이미 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특산품을 브랜드와 함께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광인프라의 개선은 크게 교통과 숙박 및 편의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교통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역접근성이 일단 용이해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주요 도시 간 여객기 운항 증편 및 인근 국가와의 여객선 운항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더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숙박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대형호텔의 투자초기 세제지원과 컨벤션센터의 건립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전략은 여수지역이 동북아물류중심지로 그리고 한려 및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국제적 해양관광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항만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선, 물류중심지로의 개발을 위해 울촌 컨테이너부두를 포함한 기존 항만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항만산업을 지역경제 성장엔진으로 육성하며 전국 물류 네트워크화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해양관광허브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국가계획 확정에 따른 도시기능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항만을 개발하되, 해양문화의 자원화를 위해 구항을 정비하고 준설토 투기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물류기능과 친수공간, 그리고 생활공간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항만공간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여수지역은 국제화에 필요한 다양한 관광자원과 경제자유구역, 항만,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도시로의 발전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이제는 보다 더 효과적인 국제화를 위해 지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지역민들이 국제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 차원의 국제화를 적극 실천할 때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이 여수지역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아울러 투자 및 국제관광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길성, "국제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여수시 국제화전략",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3집 1권, 2001, pp.135-157.
2. 남금식,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우리나라 항만의 대응 전략",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19집 1호, 2003, pp.189-206.
3. 박의범, 이승영, "국제비즈니스센터화 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제3호, 2000, pp.203-235.
4. 여수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제1차 여수·광양만권 발전 포럼』, 2004.
5. 여수시, 『2010 해양EXPO 여수유치 심포지엄』, 1998.
6. 여수상공회의소, 『21세기를 위한 여수반도권의 관광개발방향과 전략 심포지엄』, 1995.
7. 여수시, 『여수시 중·장기 발전계획』, 1996.
8. 여수시, 『여수통계연보』, 2005a.
9. 여수시, 『여수시 항만 중장기 발전방향』, 2005b.
10. 이장로, 『국제마케팅』, 무역경영사, 2005.
11. 임종관, "동북아 지역 중심항만(Hub Port) 여건의 비교분석", 『해운산업연구』, 제112호, 1994.
12. 정구현,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서, 1993.
13. 정재완, 『싱가포르'Industry 21'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1999. 8.
14. 동아일보, 2001, 1, 15.
15. Caves, R. E.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M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16. Doukas John A and LHP Lang "Foreign Direct Investment, Diversification and Firm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Vol. 34, No. 2, 2003, pp.153-72.
18. George F. Hanks and Lucinda Van Alst, "Foreign Trade Zones", *Manage Accounting*, January 1999.
19. <http://www.khidi.or.kr>
20. <http://www.geonnam.go.kr>
21. <http://www.yeosu.go.kr>